# 거듭남 (I) - 물

## (요 3:3~7)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명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남(1)-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물이라고 하는 과정이 도대체 실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남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과 성령과의 관계가 뜻하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지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 같은 경우는 '성령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학자들은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느냐, 뭣 하러 그렇게 말을 하셨겠느냐, 그러므로 물은 말씀이다, 씻음을 뜻한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은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세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진술들과도 제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로 입적하기 위한 공식적인 행사의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듭남과 연결된 물을 의미할 때, 세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의식화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실지로 내가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 물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모르고 지나가고 있고,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거듭남과 연관 지어서 세례가 뜻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그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 교회 교인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교회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겠습니까?
다 믿음이 확인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거듭나야 갑니다.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세례가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식에 있어서의 세례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실질적인 과정으로서의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할 때 이 '물'로 거듭남이 언뜻 보기에는 어쨌든 절반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1이라고 본다면 2분의 1은 물로 2분의 1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물'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는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는 의식화되어버렸으니까, 의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너무 지나치게 상징화되어버렸으니까, 이제 한번 천국 가기 위한 실질적인 의미로서의 물의 뜻을 살펴보자는 거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자면,
요한복음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도요한에게 분명한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이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위와 아래, 영과 육, 천국과 이 세상을 대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옮기신 거죠.
그런데 사도요한의 특별한 신앙의 관점이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위와 아래, 하늘과 세상, 영과 육'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지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가운데 공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거하는 차원은 공중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차원과 공중의 차원, 땅의 차원 -몸, 육체의 차원-이 동시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눈앞에 환히 보면서 오늘 거듭남을 위한 물의 의미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차원이 겹쳐져서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들끼리는 겹쳐있기가 힘들어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겹쳐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하나의 차원 위에 놓여 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과 공중과 이 세상은 겹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름이 되면 홑이불을 덮게 되는데 이불을 보면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는 이불의 천이 아니에요.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겹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늘을 이용해 실로 이불을 박아놓습니다. 실은 이불도 아니고 무늬도 아닌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또 겹쳐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불과 이불의 무늬와 누빈 실이 같이 겹쳐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차원과 공중의 차원과 육체, 땅의 차원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거듭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거듭나도 여전히 이 세 개의 차원이 겹쳐 져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세 개의 차원이 겹쳐 져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세 개의 차원이 겹쳐 져 있는 상태에서 거듭나기도 하고 거듭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개의 차원, 하늘과 공중과 땅의 차원이 있는데 공중에 있는 내 마음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어떤 상태인 것이냐 하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만,
하늘과 공중과 땅이 있고 공중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육체가 있고 육체를 중심한 삶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친구관계도 있을 수 있지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일도 있고…

자 그럴 때 도대체 공중에 있는 마음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니까 이 사실을 주목하다 보면 도대체 물로 거듭남의 과정이 거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음이 중간에 있는데,

예를 들어 세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는데, 내 이름은 '마음이'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친구는 '하늘이'가 있고 '땅이'가 있습니다. 땅이와 하늘이와 나인 마음이 셋이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하늘'이고 '땅'이기 때문에 둘이 항상 같은 방향을 지향하지 않아요.
하늘이가 동쪽으로 가자고 하면 땅이는 서쪽으로 가자고 합니다.
하늘이가 앞으로 가자고 하면 땅이는 뒤로 가자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마음이는 언제나 누군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고 땅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위이고 아래이기 때문에…  위라고 하는 친구와 아래라고 하는 친구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위라고 하는 친구와 아래라고 하는 친구와 마음이가 함께 가는 여행인 것이에요.

도대체 위라고 하는 친구가 결정하는 것과 아래라고 하는 친구가 결정하는 것은 항상 위와 아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중간에서 결정해야만 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래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아래가 더 내가 녹녹하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서 아래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 아래라는 놈이 대단한 놈이었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놈이 굉장한 놈이라서 결국 그 땅이라고 하는 놈의 종노릇하며 평생 여행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이를 향해서는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가 가슴은 땅이를 향해 돌리고 등은 하늘이를 향한 채로 셋이서 같이 여행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마음의 구조를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봐요, 마음이란 건 생물학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의 가슴은 스펀지로 돼있고 마음의 등은 아주 차갑고 딱딱한 소재인 방수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 마디로 하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슴을 향한다는 것은 스펀지와 같아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고 잉크를 빨아들이듯이, 이 마음의 가슴이 향하게 될 때, 향하는 대상을 다 마음으로 빨아들입니다. 먼저 내 몸을 향했을 때 몸이 마음 안으로 잉크가 스펀지에 흡수되듯이 흡수되어 들어온 것이에요.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몸이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 매여 종노릇한다고 합니다. 이 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몸을 중심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몸을 중심으로 부모가 계십니다. 이 몸을 중심으로 자

식을 낳았습니다. 이 몸을 중심으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중심으로 벌어진 삶이 스펀지가 잉크를 빨아들이듯 쫘~악 빨아들이는 반면에, 등을 돌리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24시간 같이 함께 가고 있는데, 세 차원이 함께 가고 있는데 , 함께 가는 동안에 이 하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싸늘하게 냉담함으로 대하고 있고,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로 묶여서 세 차원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세 차원이 묶여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요.
빨간 볼펜과 파란 볼펜을 고무줄로 묶어서 같이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을 쓸 때는 빨간색 쪽으로, 파란색을 쓸 때는 파란색 쪽으로 필요에 따라 움직여서 사용합니다. 이 빨간 볼펜과 파란 볼펜이 고무줄로 함께 묶여는 있지만 둘이 연합하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거나 침투해 들어가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펀지와 잉크는 완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되어 들어가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볼펜과 볼펜이 고무줄로 묶인 것처럼 이 세 개의 차원이 겹쳐 있는 바람에 묶여는 있습니다마는 마음의 등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는 차가운 방수코팅 된 등으로 대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온갖 따뜻함과 정열과 사랑과 집착을 다 보이면서 흡수해 빨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살던 상태가 죽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물로 죽어야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세례라는 게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난다, 철저하게 태어난다, 위에서 태어난다, 합치면 '다시 철저하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의 등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가슴을 돌려 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이라는 것은 세례요, 죽음을 말한다고 할 때 차갑게 코팅된 마음의 등을 이 세상을 향해 돌린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차갑게 코팅된 등을 돌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성령을 향하여 마음의 가슴을 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몸을 향하여 마음의 가슴을 열었던 것처럼.

독일에 있을 때,
독일의 대학생들을 가만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들이 동거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회적으로 잘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방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외지에서 와서 학교생활 하기가 외롭기도 하고, 혹은 공부하는데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등등의 이유로 동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거할 때의 모습을 보면 참 웃겨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사귀는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정도가 아니라 동거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쇼핑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남자가 물건을 이것저것 꽤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 껌 한 통입니다. 껌 한 통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남자가 많은 물건 사는 중에 함께 계산하면 좋을 텐데, 반드시 따로 계산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동거 자체가 이해 안되는 게 아니라 이왕에 동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껌 한 통을 따로 계산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 지붕 아래 살지만 필요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이지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필요한 부분만 충족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독일이라도 남편이 돈 벌어오면 주머니 털어서 아내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물건 살 때, 남편이 먹을 것 같이 삽니다.
이게 서로에게 침투해 들어간 것이에요. 사랑으로 침투해 들어간 거죠.

이 관계에서 위와 아래가 있고, 하늘과 땅이 있는 가운데 마음이 있으면서 그 마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음이 결정되는데,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겠어요. 코팅된 마음의 등을 누구에게 돌리고 스펀지 같은 마음의 가슴을 어느 쪽으로 향해 돌리느냐를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가슴을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가 등을 하나님 쪽으로 대고 있던 마음이 물의 과정을 겪으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이런 노래는 잘 부르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세상을 등진다는 게 무엇이며, 물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세례의 과정이 상징적이고 예배의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로서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살리면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세상을 등진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차갑게 코팅된 등을 돌림으로 세상의 그 무

엇도 빨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몸과 관계된 자식도 배우자도 가족도 부모도 누구도 빨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비가 아들과 어미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할 것이다, 또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유가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 등을 돌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이 땅위에서는 더 이상 기쁨을 찾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을 잘해서 흑자가 되면 기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사업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된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고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죠. 이게 죽은 겁니다.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자로부터 기쁨을 기대하지 말고 애인 사귀면서 기쁨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죽은 거고 이게 코팅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한 번도 동참해 본 적이 없고, 하늘에서 주는 기쁨에 한 번도 취해 본 적도 없고, 하늘에서 기쁨을 기대해 본 적도 없잖아요, 왜? 차갑게 코팅된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늘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물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물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들이 누리는 기쁨을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 대해서는 차갑게 코팅막으로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귀해요? 인연이 몇 년 되었습니까? 자식이 30세라면 30년 되었지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이 대단합니까? 애인이 대단합니까? 배우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식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 안에서 예정 가운데서 자식으로 삼으신 햇수가 몇 년이겠습니까? 몇 천 년, 몇 만 년?
어디 거기다 대고 자식이 대단한 거라고 자식에게서 기쁨을 찾겠다고 하고 있어요?
몇 천 년, 몇 만 년 나를 자식으로 내정하신 하나님아버지로부터 기쁨을 한 번도 찾아보지도 기대해 보지도 않은 채로…

그러면, 자식에게서도 애인에게서도 기쁨이 없고, 사업을 해도 기쁨이 없고 직장에도 기쁨이 없고, 대학을 들어가도 기쁨이 없다는 말이냐?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물로 죽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납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스펀지처럼 가슴을 향하고 있어서 세상을 빨아들이며 기쁨

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아직도 내 자식이 기쁨이 되고,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형통이 기쁨이 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산다는 게 뭐냐?' 뭐긴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늘 얼굴이 죽을상이 되어서 축 처져있던 미스 김이 갑자기 어느 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관심도 없었던 남자 직원들이 볼 때 갑자기 미스 김이 예뻐 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마음에 드는 결혼할 남자가 생겨서 결혼날짜를 정했습니다.
미스 김은 이전과 이후 동일하게 회사 안에서는 아무 기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밖에서 좋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쁨을 밖에서 가지고 기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안에서 대리는 계장이 되려고 하고, 계장은 과장이, 과장은 부장이 되려고 하고 부장이 되면 기뻐했다가 한 일 년 지나면 또 다시 전무 되려고 하고, 기쁨을 찾는 모든 사람이 기쁨을 찾느라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스 김 혼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기쁨을 기대하지 않는 미스 김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스펀지와 같은 마음의 가슴을 하늘로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기쁨을 빨아들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업장으로 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기쁨의 일을 경험해보려고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애인을 만들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 기쁜 상태에서 애인을 만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자식을 길러서 기뻐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식 죽고 나 죽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아무 기쁨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은 것 아닙니까?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헬라 이름으로 다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은 겁니다.
이 땅에서 친구들에게 기쁨을 기대했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은 증오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기쁨을 기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처럼 광채가 나면서 그들을 용서해버립니다.
왜? 기쁨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미워한다는 것은 기쁨을 기대했다가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스 김이 회사 밖에서 결혼을 결정하고 얼굴에 빛이 나면서 회사 안에서 기쁨을 찾는 모든 사람들과 달라진 것은 온갖 궂은일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회사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야근을 하라고 하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미스 김은 그 남자가 함께 해 주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애인 때문에 기뻐하려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인보다 못해요?
왜 돈 벌어서 기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돈보다 못해요?

'물', 거듭남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미스 김이 밖에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실지로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의 과정은 뭡니까?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를 줄 때 물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당신에게 주어질 복이라는 게 없다, 이 세상에서는 당신에게 주어질 형통이라는 게 없다, 복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복이 아니고 뜻이다. 당신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복이 아니고 뜻이다. 당신이 누릴 복은 하늘에만 있을 뿐이다. 당신은 이제 운명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기뻐할 것도, 기대할 것도, 소원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의 과정이에요. 이걸 납득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공생애 때에 따라 다닌 사람들이 거의 새 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기적 일으키는 걸 보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걸 보고 좋아서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그 당시 로마식민지 하에서 십자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저주로 알았을 겁니다. '끔찍한 저주를 목에 걸고 다니느냐, 재앙이 임하려고…' 그렇게 말했을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 이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죽는 게 뭡니까? 마음에 싸늘하고 두껍게 코팅되어 이 세상 것은 전혀 흡수가 안 되는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걸 결단시키는 것이 바로 물의 과정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거듭남을 돕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거듭남을 돕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걸 결단 시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원하는 것 다 들어 주신다.'
이런 거짓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무슨 거듭남이 이루어집니까?

'당신이 예수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이제 당신은 자식을 키워도 자식에게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에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사업도, 자식도, 애인도, 배우자도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도 당신에게 기쁨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형통도 아닙니다. 당신의 복과 기쁨은 오직 하늘에 있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만이 당신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아니, 애인을 사귀고 있는데 애인하고도 기뻐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안 기뻐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애인을 만납니까?'
'애인 때문에 기쁠 모든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족되고 애인은 그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인으로부터 기쁨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형통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안 벌립니까? 저주가 아니라 일이 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복이 사라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당신이 누리는 복은 신령한 복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복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결단하게 하는 것이 물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쁨을 기대하지 않는 것.

지금의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듭나기 전의 상태,
이 마음의 가슴인 스펀지를 세상을 향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나 혼자 수고하고 애써야 됐는데 예수 믿은 뒤로는 예수님의 능력까지 동원돼서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나가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더욱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물은 죽는 겁니다.
죽음의 실제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쁨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건 결심일 뿐이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돈이 안 벌리면 슬프고 걱정되고 애인과 삐그러지면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애인을 만나 기분이 좋아지면 기쁠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결심은 '아, 내가 이 애인과의 기쁨도, 사업, 자식과의 기쁨도 다 없어지고 오직 내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기쁨뿐이다'는 이 기독교인의 운명을 쾌히 받아들이게끔 납득하는 과정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듭남을 향한 물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의 과정을 통과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셨고, 하나님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고 하나님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물의 죽음을 실제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곡해해서 반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거울로 비춰보듯이 비춰보게 하시고 온전히 다른 궤도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